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진안 용담호 수변구역 일부 규제 해제

## 도, 새만금 개발 가속화 동력 확보

새만금위 서면심의서 투자진흥지구 확대·연결도로 의결

### 기후부 최종 승인·고시 용담댐 건설 후 23년간 강력한 개발 규제로 묶여 지역주민 재산권 회복 관광개발 전환점 마련

용담댐 건설 이후 20년 넘게 강력한 개발 규제로 묶여 있던 진안 용담호 수변구역의 일부 규제가 마침내 풀렸다.

진안군은 용담호 수변구역 일부에 대한 규제 해제가 지난 7일에 기후부·내·외·환경부로부터 최종 승인·고시됐다.

오랜 기간 이어진 규제의 벽을 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온 진안군의 끈질긴 행정력이 결실을 맺으면서 주민 재산권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총 1,251㎢(약 38만평) 규모로 축구장 175개 규모에 해당되며 주천·안천·정천·용담면 등 용담호 인근 7개 읍·면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 2002년 수질 보호를 위해 지정된 수변구역(111.7㎢, 진안군 전체 면적의 14.2%) 가운데 일부가 23년 만에 일부 해제되는 것으로, 지역 발전을 가로막아 온 대표적인 규제가 완화된 상징적인 조치다.

지난 2001년 진안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일원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용담다목적댐이 준공됐다.

이 과정에서 2,864세대 1만2,000여명의 주민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으며, 이후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용담댐 홍수위 선에서 1km 이내에 음식점·카페·숙박시설·공동주택 등 각종 시설 설치가 엄격히 제한되고 용도지역 변경도 사실상 불가능해 대규모 개발 사업이나 민간 투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 받았고, 지역 경제 활동 역시 위축되는 등 장기간 불이익을 감



용담호 수변구역 일부에 대한 규제 해제가 지난 7일에 기후부·내·외·환경부로부터 최종 승인·고시됨에 따라, 8일 이경영 진안군수 권한대행이 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내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안군민들은 전북자치도와 충남 지역의 도민들에게 공급되는 소중한 물을 지키는 자부심을 가지고 주민 협의회를 구성해 수질자율관리 지역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하지만 장기간 지속되는 지역 개발의 한계에 직면한 전북특별자치도와 진안군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기후부·내·외·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수차례 협의를 이어왔으며, 수질 보전과 지역 발전의 균형을 찾기 위한 정책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하수처리시설 확충과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 수질 관리 기반을 꾸준히 강화하며 수변구역의 합리적인 조정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 왔고, 이번 규제 완화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이번 해제로 해당 지역 내 사유지를 포함한 총 2,445필지의 토지 활용도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생활 편의시설 확충은 물론 용담호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생태관

광·휴양 개발 가능성도 확대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간 투자 유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진안군은 용담호 수변구역 해제가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상류 지역 하수처리시설을 확대 운영하여 오염원을 원천 차단하고 철저한 수질 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청정 진안'의 환경 가치를 보존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지역 특색을 살린 친환경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법에 따른 맞춤형 인허가 안내 등 행정 지원을 대폭 강화해 환경 보전과 지역 발전이 공존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예정이다.

조봉진 환경과장은 "2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환경 보전을 위해 불편을 감내해 온 군민들의 인내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며 "이번 수변구역 일부 해제가 용담호의 자연 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와 지역 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유태만 기자

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 도로가 새만금 내부 접근성을 높이고 향후 개발 사업의 추진 속도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기반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심의·의결을 통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8공구가 제2호 투자진흥지구로 확대 지정될 예정이다. 해당 조처로 새만금 신단의 투자유치 기반을 넓히고 기업의 투자 결정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토대 강화 등 기업 입주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투자진흥지구 확대는 기존 지정구역에 이어 후속 산업용지까지 지원체계를 확장하며, 새만금 신단 전반의 투자 연속성을 높이고 대규모 투자 유치 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함께 의결된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개발기본계획은 새만금 내부 핵심 거점을 잇는 기반시설로, 복합개발용지와 관광·레저용지, 스마트 수변도시 등 주요 개발축 간 연계

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 도로가 새만금 내부 접근성을 높이고 향후 개발 사업의 추진 속도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기반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두 사업의 동시 의결은 단순히 개발 안전 통과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와 교통 인프라가 함께 진전되면서 새만금의 투자 실행력과 내부개발 기반이 강화되는 계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투자유치 기반과 내부개발 기반이 동시에 보장되면서 새만금 개발의 본격적인 착수를 앞당길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앞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고시 이후 기업유치 지원과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하고, 지역간 연결도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 등과 긴밀히 공조할 계획이다. 새만금이 투자유치, 산업집적, 내부개발이 선순환하는 성장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후속 제도 정비와 기반 마련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1만호 기자

## “전북, ‘속도의 경제’로 차별화하자”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5극3특 대응 전북 고립 극복 위한 프레임워크 제시

전북특별자치도가 5극3특 체제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5극 초광역권의 '규모의 경제'가 아닌, 특별자치라는 제도적 특수성과 단일 행정체계의 신속성을 활용한 '속도의 경제' 전략으로 차별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원장 최백렬)은 5극3특 체제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응방향: '속도의 경제'에 기반한 3S 전략' 이슈브리핑을 통해 비대칭적인 5극3특 체제와 전남·광주 통합특별자치법 국회 통과 등 행정통합 가속화 속에서 전북의 전략적 고립을 극복하기 위한 압박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전지는 연구위원은 "5극3특 체제가 5극 중심으로 추진되고, 행정통합에 따른 5극의 특별자치까지 대두되면서 전북의 차별성과 실익이 급격히 희석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위기에 관한 대응 방안으로 천 연구위원은 전북이 5극과 같은 규모의 경제 논리로 경쟁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고 분석하면서, 대안으로 속도의 경제(Economics of Speed)에 기반한 3S 전략을 제안했다.

3S 전략은 △S1. SEED(미래산업 분야 선점) △S2. STRAIGHT(패스트트랙 행정) △S3. SPREAD(빠른 실증, 성과 확산)의 세 축으로 구성되며, 선형적 단계가 아닌 순환적 강화 구조로 전북의 내생적 성장을 촉진함을 목표로 한다.

SEED 전략은 농생명·바이오 AX 특화지구, 헬프 메디컬 푸드 첨단 재생의료 등 미래산업의 씨앗을 전북이 가장 먼저 제도적으로 품을 수 있도록, 제도가 산업을 끌어당기도록 하는 전략이다. STRAIGHT 전략은 중앙부처의 사전 승인·협의·인허가 절차를 도지사의 직접

결재·승인으로 대체하여 행정 속도를 극대화하는 방안이다. SPREAD 전략은 전북이 먼저 실증한 성공 모델을 전국 표준으로 확산하는 테스트베드 전략이다.

이울러 천 연구위원은 전북이 독자적 3특 지위를 방어하면서도 사안별로 합종연횡을 구사하는 '유연한 초광역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세종시와의 광역철도망 공동 요구, 에너지 거버넌스에서 전남과의 공동 인구 소멸 대응을 위한 강원·제주와의 3특 연대 등을 제안했다.

천 연구위원은 "전북에게 부족한 것은 자원이 아니라 이 자원을 활용한 제도적 프레임워크이며, 향후 전북특별법 개정은 '낙후지역 배려 논리'에서 '국가발전 기여 논리'로의 대전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WIAWIS와 함께 하는**

# 2026 정읍 내장산 그랑폰도

2026. 5. 16.(토)  
정읍·순창 일원

2026.5.16.(토) 06:30  
내장산 워터파크 행사장 집결  
※본 대회는 정읍시 보조금지원 사업으로 운영하는 대회입니다.

정읍시 | 정읍시체육회 | 정읍시자전거연맹 | WIAWIS